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4월 24일(주일) 제1096호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

메마른 땅에 생명의 싹을 틔우고



1만 1천 명, 25억 목표 ... 후원, 홍보기도, 재능기부도

오늘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 후원 약정행사가 실시된다.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예배에서 나눠주는 후원 약정서에 기입하는 것으로 동참할 수 있다. 해외 비전 교회에서는 비전헌금을 봉헌한다.

이번 후원 약정행사는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실시된다. 작정한 금액은 매월 지정된 날짜에 출금된다. 기간은 1년이다. 후원 약정서에는 성명, 휴대폰번호, 소속캠퍼스, 은행명, 계

좌번호, 예금주 및 예금주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작정금액은 금액란에 체크하고,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에도 빼놓지 말고 표시해야 한다. 관심 있는 나라와 돕고 싶은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일시, 목적후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성도들이 더멋진세상에 작정한 후원금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지역 등지에서 더멋진

마을 조성사업, 농업사업, 의료 및 보건사업, 긴급·난민구호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이번 후원 약정행사에 11,000명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연간 후원금 25억 원이 모이기를 소망하고 있다. 홍보기도 후원자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6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1호에서 NGO 더멋진세상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건축, 교육, 의료, 농업, 통역 등 재능기부도 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 김창욱 사무총장은 "지구

촌 이웃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선물하고 있는 NGO 더멋진세상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0년 설립된 NGO 더멋진세상은 선교와 NGO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사랑'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가난과 질병,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문의: 02-2271-2248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

5월 23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65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가 5월 23일(월)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전도사업 본부가 주최하는 이번 맞춤전도집회는 '나의 부모님께 소중한 행복을 드립니다'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가 네 번째 집회다.

이번 집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개그맨 이흥렬, 이성미, 방송인 오미희, 가수 이무송, 노사연, 샌드애니메이션 박진아 작가, 퓨전 국악팀 가야랑, 실버합창단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참가접수는 주일통합데스크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평일에는 목회행정실에서 신청을 받는다.

2013년부터 시작된 65세 이상 부모님 초청 맞춤전도집회는 전도의 황금어장으로 불리고 있다. 결신율이 2013년 75%, 2014년 81%, 2015년 90%나 됐다. 가정의 달 5월 부모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문의: 02-3215-3356(3214)

010-2195-5175

오늘 인천 온누리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오전 11시, 이재훈 담임목사 설교

인천 온누리교회가 오늘 오전 11시(2부 예배)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예배에서는 인천 연합성가대가 교회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는 특송을 하고, 성도들에게 떡과 국수를 제공한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2006년 4월 30일 국내 여덟 번째 캠퍼스로 창립됐다. 성도 50명이 채 되지 않던 교회가 1,7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예배드리다 지난 2월 28일 연수구 송도동 송도 컨벤시아와 프리스페이스로 예배처소를 이전했다. 예

배 공간 확충과 차세대 예배 공간이 넓어지면 성도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 송도 컨벤시아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인천대입구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김기영 장로는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송도 컨벤시아에서 신령에 진정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복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정민호 성도(믿음 공동체)는 "인천 온누리교회가 외국인과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김미림 기자

몽골이주민 돕는 허석구, 이영숙 목사

베다니마을교회 예배 참석하고, 한국어 가르치고, 성경공부도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본지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역, 기독교 기관 및 단체, 이웃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열두 번째 주인공은 몽골에서 온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다. 베다니마을교회 허석구 목사의 이야기는 2009년 CGNTV에도 방영된 적 있다. 지난 16일 서대문구에 위치한 그곳을 다녀왔다.



몽골인들이 선물해준 그림을 들고있는 허석구, 이영숙 목사 부부.

수많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다. 하지만 한국생활이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다. 고단하고 서러울 때가 많다. 기댈 곳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참고 일하고 있다. 그들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팍팍해도 매년 한국에 오는 외국인 이주민들의 수가 늘고 있다. 올해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민이 184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인구 4%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외국인 이주민들의 58%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제 한국도 고개만 돌리면 외국인 이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다문화국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열방이 됐다.

외국인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베다니마을교회도 외국인 이주민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허석구, 이영숙 목사 부부가 사역하고 있다.

베다니마을교회는 가정교회다. 올해 1월 문을 열었다.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몽골에서 온 외국인 이주민 이십삼 명이 예배드리고 있다. 그들은 밤을 새워 일을 해도 주일에 배에는 꼭 참석한다. 하루벌이가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소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눈겨울이 천근만근이지만 허목사가 몽골말로 전하는 설교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한 주를 살아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주민들에게 말씀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없다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치과의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허석구, 이영숙 목사는 부산에서 자랐다. 기차길 옆 판자촌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다. 허목사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다. 힘들게 대학을 졸업했지만 의사보다 목사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 기다림이 필요했다. 당시 10년 동안 사귀던 이영

숙 목사와 결혼하고 부산에서 할렐루야 치과를 개원했다. 허목사는 실력 좋은 간호사보다 믿음 좋은 간호사를 채용했고, 매일 아침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치과를 운영하면서 의료선교에도 힘썼다. 매주 수요일에는 돈이 없어 진료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무료로 진료해줬고, 지역치과 의사들을 설득해 장애인들을 위한 진료소도 만들었다. 20년을 밤낮으로 의료선교에 헌신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했다.

1999년, IMF 여파로 한국경제에 한파가 불어 닥쳤다.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수도룩했다. 당시 한 지인이 허목사에게 노숙자들을 섬기자고 제안했다. 허목사는 희망을 잃은 노숙자들을 위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고 1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 그때 신학을 공부하기로 다시 결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노숙자가 허목사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장로님 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 말을 듣고 허목사가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나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그럼 나랑 같이 합시다.”

그렇게 이들 부부는 50살이 넘어서 신학공부를 시작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입학 준비하면서 “둘 다 합격해야 된다”고 선포했다. 허목사는 수석으로, 아내 이목사는 3등으로 합격했다. 정말 재미있게 신학을 공부했다.

목사 안수를 앞둔 부부에게 전문인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 선교지에서 일할 수 있는 병원만 구하면 됐다. 마침 몽골 연세친선병원에서 치과과장을 구하고 있었다. 사역지가 결정된 만큼 떠나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허목사의 어머니가 선교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긴 잘나가던 아들이 갑자기 선교사가 된다고 하니 반길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당시 이라크에서 고 김선일 선교사가 순교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기에 반대는 더 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선교사는 안 된다. 선교사가 되려거든 나랑 인연을 끊자.”

어머니의 반대는 완강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한 순간에 바뀌었다. 고 김선일 선교사의 장례식에 다녀오고 나서 생긴 변화다.

“선교가 정말 중요한 것 같더군요. 딱 1년만 다녀와라.”

몽골에서 허목사 부부는 치과의사로, 연세친선병원 목사로, 선교사로 쉴 틈 없이 사역했다. 의료인 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에 선교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없었다. 종교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선교활동을 하다 걸리면 추방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허목사 부부는 일단 환자와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 전하는 방식은 간단했다. ‘한국어 초급교실’을 열고 그 곳에 온 사람들과 성경으로 한국어 공부를 했다. 한국어 초급교실은 한국어 공부도 하고, 성경공부도 하는 일석이조였다. 환자 한 명 한 명이 선교대상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었다.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밀가루 포대를 돌려매고 심방을 다녔다.

허목사는 몽골에 오면서 교회와 무료 진료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다. 단 음식과 고기를 좋아하는 몽골인들은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30대에도 틀니를 끼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병원비가 비싸서 쉽게 치과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허목사는 그들을 위해서 무료진료소를 만들었다.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 한국에서 쓰던 치과 기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갔다. 그렇게 치과 진료 버스와 무료 진료소 ‘아가페 클리닉’을 개설했다.

자나 깨나, 언제 어디서나

허목사 부부 주변에 하나 둘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몽골에 온지 1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정교회부터 시작했다. 한 두 사람으로 시작한 성도가 아파트 수위, 병원 실습생, 간호사가 지 함께 하면서 어느덧 25명이 됐다.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었다. 시내 중심지에 마땅한 건물

이 있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무작정 계약을 하고 모금을 위해 후원교회인 부산 거성교회를 찾았다. 전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했고, 몽골 울란바토르에 베다니마을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종교인 비자도 발급 받았다.

허목사 부부는 ‘한국어 설교 통역사’ 육성에도 힘을 쏟아 부었다. 설교 통역만큼 제자양육에 좋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다. 몽골 베다니마을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로 우뚝 섰다. 베다니마을교회 성도들이 사회선교를 열심히 한 영향도 있었다.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했다면 허목사에게 감사패도 줬다.

베다니마을교회는 온누리교회와도 관계가 깊다. 2009년 온누리교회 파송 한영훈 선교사의 소개로 CGNTV ‘독수리 5형제’ 촬영팀이 베다니마을교회를 찾아왔다. 2009년 3월 31일에는 ‘몽골 허석구 선교사’ 편이 방영됐고, 당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후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선교사들에게 기도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거든요.”

허목사는 2014년 투굴두루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위임하고 은퇴했다. 평신도로 베다니마을교회를 섬기던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계속 몽골 선교사로 남아있고 싶었지만 허목사가 간암이 걸려 어쩔 수 없이 입국했다. 지난해 9월 간 40%를 절개하는 큰 수술을 받았다. 허목사는 수술을 마치고 다시 몽골에 갔다. 하루라도 더 몽골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이다. 허목사의 송별회 날 베다니마을교회 성도들이 작은 선물을 줬다. 열매가 잔뜩 열린 나무그림이었다. 형형색색으로 맺힌 그 열매들은 성도들의 지문이었다. 성도들이 선물한 그림에는 “당신 덕분에 하나님의 열매가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장입니다. 한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몽골인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 은퇴할 때가 아닙니다.”

허목사 부부는 자나 깨나, 언제 어디서나 몽골인들을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다보면 피가 끓었다. 한국에 베다니마을교회를 세운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베다니마을교회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준비할 것도 많지 않았다. 또한 부부는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의 가장 큰 고충이 비싼 주거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숙소도 만들었다. 그 숙소에는 지금 몽골인 여성이 생활하고 있다. 남자 숙소도 만들 예정이다.

현재 가정사역공동체 이재철, 오정옥 성도가 섬기고 있다. 더 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보는 것이 어떨까.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 섬기면 좋겠다. 한국어를 가르쳐도 좋고, 함께 성경공부를 해도 좋다.

문의 : 허석구 목사 010-5840-0365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9:1~10

“현재의 영적생활 수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과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오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영적인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아비와 청년의 신앙으로의 성장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의심으로 가득한 연약한 신앙에서 확신과 능력이 가득한 충만한 믿음으로의 성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세례가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구분 짓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세례는 성령님 자체의 사역이라기보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베푸시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를 받았지만 확신과 능력이 없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충만한 영적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세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격려와 도전으로 삼아서 영적성장의 단계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잠재적인 사건과 체험적인 사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세례를 경험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는 이를 두고 잠재적인 사건과 체험적인 사건이라고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잠재적인 사건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성경의 약속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사건은 성령세례를 통해서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성령님

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라고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3차 여행의 중간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라고 한 질문은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이 있냐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고, 확신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있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세례를 구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가 자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체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위로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매 거듭남이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거듭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듭난 일시를 말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심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행 8:15-16).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

령세례가 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의식적, 자각적, 체험적 능력과 확신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세례가 임했습니다.

성령세례와 물세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사건이 나옵니다. 성령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행 1:4-5).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한 것입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의심하고, 불안하고, 확신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라고 질문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사건이 임했습니다. 그 사건이 한 번만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

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 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행 10:43-45).

고넬료 가족들이 믿을 때에는 성령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물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성령이 임하는 패턴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세례가 임했고,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받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세례가 임했습니다. 물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물세례를 받은 이후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세례가 임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 패턴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식처럼 물세례 후에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세례를 받기 이전에 성령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세례를 통해 우리 마음 속에 깊은 확신과 기쁨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해주고, 안수해주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세례를 나타내는 증거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열두 사람 정도였습니다”(4-7절).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도덕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세상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의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 에베소 제자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그들이 경험한 성령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13면에 계속〉

창조론 교육 이대로 좋은가?

4월은 과학의 달이다. 4월 21일은 과학기술 발전과 대중적 확산을 위해 제정된 과학의 날이다. 크리스천들이 과학의 달을 보내면서 과학과 창조론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한국창조과학회 이은일 교수가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이은일 장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한국창조과학회장)

과학의 날은 원래 <종의 기원>의 저자 찰스 다윈의 기일인 4월 19일이다. 4.19혁명기념일과 겹쳐져 1969년부터 우리나라 과학기술처

개청일인 4월 21일로 옮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의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은 과학 발전이 국가 발전과 직결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한다. 문제는 기원과학으로서 진화론만을 과학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진화론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창립 이후부터 줄곧 기원과학으로써 창조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창립된 해에는 1년 내내 전국의 교회에서 창조과학 세미나 요청이 쇠도 했을 정도로 교계의 지지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교계의 지지가 약해지고, 창조과학회를 공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창조과학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는 비판. 둘째, 근본주의 혹은 문자주의라는 비판. 셋째,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는 창조에 대한 내용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배후에는 과학적 진화론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지성이라고 주장하는 유신진화론자들이 있다. 이런 공격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신앙을 강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창조교육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음을 절감한다.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이는 오히려 과학 자체가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에 의한 질서를 연구하는 것뿐이지, 창조 자체를 관찰하거나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창조과학세미나에서 창조를 변증하는 방식은 주로 창조와 진화 두 이론을 비교하는 것이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물질의 진화와 물질로부터의 생명체 탄생이 우연과 오랜 시간이라



창조론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다.

는 비과학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을 한다. 정교한 우주와 생명체의 설계가 우연의 결과라는 주장은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다. 생명체의 설계도가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을 통해 새로운 설계도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비판한다. 이는 DNA 정보 자체의 놀라운 복잡성과 정교성에 의해 거부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화석들이

없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언제부터인가 초월적 창조를 거부하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방법이 초월적인 창조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진화의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화론은 수많은 과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과학인데, 이 진화론을 거부하는 창조과학은 기독교 지성을 망신시키는 장본인이라고 말한다. 그

과학을 바로 이해하고, 잘못된 진화론을 알아야 한다.

교회와 가정이 창조신앙에 기초한 믿음이 굳건해야 한다.

과거와 현재에 전혀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화론 비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진화론이 틀렸기 때문에 창조가 맞을 수밖에 없다는 이원론적 주장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 자체는 믿음을 요구함을 주목해야 한다. 창조과학은 진화론만이 유일한 과학적 해석이라는 세상의 학문과는 다른 출발선에 있다. 일반적으로 과학은 관찰과 추론을 통해 정립되지만, 창조과학은 성경의 기록이 진리라는 과학자들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창조과학을 통해 피조세계에 나타난 놀라운 질서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창조가 지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창조과학자들 중에 그 누구도 과학으로 창조를 증명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창조과학은 진화론의 허구를 드러내기 위해 과학을 다루지만, 초월적 창조는 믿음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창조론 교육은 과학적 증거를 수반하지만, 그 과학적 증거가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초월적 창조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진화론 자체에도 수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초월적 창조를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유신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자연주의 믿음에 기반을 둔 기원과학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이 자연주의 믿음에 기반을 둔 기원과학이라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과학을 성경보다 우위에 뒤희는 안 된다

진화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진화론과 자연주의 믿음은 별개이며, 진화이론은 순수한 과학적 탐구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흠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보다, 원숭이와 같은 존재에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훨씬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주장한다. 과학적 지식이 없는 시대에 쓰인 성경은 새로운 과학의 발전에 따라 그 주장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과학을 성경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기록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진화론을 수용하면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초월적 창조와 연관된 죄와 타락, 구원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송두리째 왜곡시킨다. 안타깝게

도 많은 교회에서 유신진화론을 새로운 창조론 교육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에 비교해 기원과학으로써 진화론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안다면 유신진화론은 교회에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유신진화론이 교회 내에서 지지를 획득해가고 있는 상황은 신앙의 위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다른 확인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믿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창조신앙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창조론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창조과학이 근본주의 혹은 문자주의라며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연대(年代)문제에 대한 것이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젊은 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젊은 연대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젊은 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성경의 기록이다. 창조 6일의 하루가 24시간을 의미하며, 창세기 족보에 근거해 창조 이후 연대들이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 기록에서 정확하게 날짜까지 알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고, 족보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성경 기록을 근거하면 우주와 지구의 연대가 1만년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룹 또한 있다. 그들은 초월적 창조를 거부하는 빅뱅이론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우주의 연대를 1만년 이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젊은 연대를 주장하는 창조과학자들 중에는 이런 상반된 의견이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성경이 지구의 시간을 기준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빠른 속도로 우주여행을 하고 지구에 돌아올 때 지구에서는 이미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상대성이론의 논의처럼, 지구와 우주의 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의 연대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상대성이론, 빅뱅이론, 방사성동위원소 측정 등 많은 과학적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창조과학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학술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창조과학은 지금까지 과학적 증거들의 진화론적 해석과 성경적 해석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 진화론의 공격으로부터 창조신앙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창조론 교육의 중심이 창조과학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교회 내부에 진화론을 인정하는 유신진화론이 뿌리 깊게 내리려하는 이때 초월적 창조를 공격하는 유신진화론에 대처하는 방법이 창조과학만으로 충분할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진화론은 이제 과학뿐 아니라, 역사와 심리학을 포함한 전 인문 분야 학문 세계의 중심이

창조신앙 추천도서

과학자들이 들려주는 창조과학

되었다. 인간 세상 자체가 치열한 생존경쟁이 이뤄지는 진화론적 세상이 된 지금, 창조론 교육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녀양육을 포함해 기독교 교육 전반에 걸친 창조신앙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창조과학을 배워 창조과학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창조론 교육의 핵심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의 하나님은 기복신앙의 대상이나 잔인한 폭군이 아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공급해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므로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누가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 가르칠 수 있을까? 그 역할을 부모와 교사들이 해야 한다. 부모와 교사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지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 시대는 창조신앙이 크게 위협받는 시대다. 부모와 교사들이 직접 나서서 창조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세워주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과학의 발전이 마치 진화론을 정당화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학의 발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의 선물이다. 과학을 바로 이해하고, 잘못된 진화론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창조신앙에 기초한 자녀양육이 바르게 이뤄져야 한다.

5월 26~28일 '창조신앙교육축제'

한국창조과학회는 기독교 교육과 가정교육에서 창조신앙 강화를 위한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창조신앙교육축제'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개최한다. 창조신앙교육축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홍수, 감각적인 정보 중심의 미디어 시대, 정보와 지식의 축적을 넘어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창조론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동역하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되었다. 이번 창조축제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한국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진리를 지키는 일은 값없이 이뤄지지 않는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하지 않고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제 창조의 진리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하고, 모든 교회가 창조신앙에 기초한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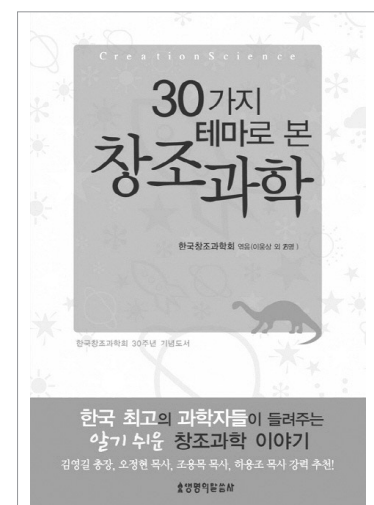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빛과 어둠, 낮과 밤, 하늘과 땅과 바다, 채소와 나무, 광명체(태양, 달, 별), 짐승,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따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세상이 이를 부정하고 있다.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해 진화론의 초석을 다졌고, 1871년 <인류의 혈통>을 저술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진화론은 학문적 영역보다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진화론은 사회문화적으로 뿌리 깊게 파고들었다. 영화, 드라마, 심지어 학교교육조차 진화론 사상에 물들어 있다.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두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알기 쉽게 창조과학에 대해 알려주는 <30가지 테마로 본 창조과학>과 만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설파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과학실험 큐티>다.

창조과학에 대한 30가지 질문



<30가지 테마로 본 창조과학>은 제목 그대로 창조과학에 대한 30가지 주제에 대해 한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 지진, 노아의 방주, 흑인·백인·황인종, 그랜드캐니언, 인간 광우병, 빅뱅, 공룡, 줄기세포 복제, 화석, 언어와 진화론, 키크공과 유인원, 영화 아바타, 쓰나미 등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30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성과 신빙성, 재미까지 한꺼번에 잡았다. 그중에서 인종(人種)의 등장과 영화 '아바타' 속에 담긴 진화론을 짚어보겠다.

진화론자들은 인종의 등장이 진화의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흑인이 황인을 거쳐 백인으로 진화했다고 말한다. <종의 기원>을 저술한 다윈과 추종자 헉슬리는 사람이 침팬지에서 진화했다고 주장했고, 독일의 대표적 진화론자 헤켈은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창세기가 말하는 인종 분화와 다르다. 창세기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으로부터 오늘의 인

류가 유래했다고 적혀있다(창 9장). 이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갈라진 후 인류가 어족(語族) 단위로 흩어지게 되었고,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언어집단이 곧 민족의 기원이 되었다고 말한다(창 11장). 실제로 인간은 단 한 종으로 구성돼 있고, 어떤 인종이라도 혈액형만 맞으면 수혈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은 결코 원숭이나 침팬지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종 안에서 신체적 특징이 강조된 것뿐임을 설파하고 있다. 진화가 아니라 분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진화론자들의 이론이 인종말살정책에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다윈의 조카 골턴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인 위주로 인종을 개량해야 한다는 인종우생학을 제창했다. 헤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계층들(교아, 과부, 장애인, 알콜중독자, 정신병자 등)을 독가스로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헤켈의 영향을 받은 히틀러는 나치전당대회에서 진화론을 나치강령에 도입하고, 단종법을 만들어 200만 명을 단종시켰으며, 독가스로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독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화론의 참혹한 영향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개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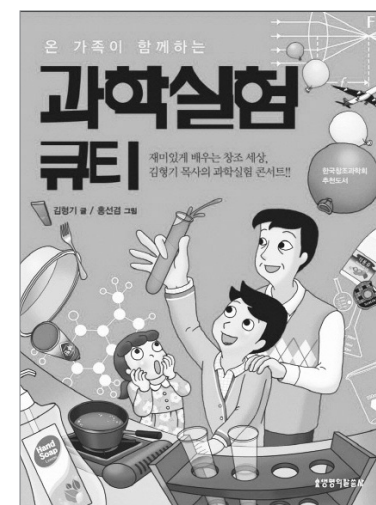
2009년 개봉한 영화 '아바타'.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1,330만 관객을 동원했다. 외화 최고 기록이자,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흥행 3위에 해당될 정도로 공전의 히트를 쳤다. 3D 입체화면으로 보는 화려한 액션과 아름다운 자연의 융합, 섬세한 그래픽과 탄탄한 스토리에 빠져 3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단순하다. 대체 에너지 자원 발굴팀을 돕기 위해 외계행성 판도라로 간 제이크는 원주민 나비족의 여인 네이티리와 사랑에 빠진다. 제이크가 지구로 구하느냐 나비족을 보호하느냐 갈등하는 사이 지구인과 나비족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나비족은 제이크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된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바타는 지구인들이 나비족의 DNA와 인간의 DNA를 조합해서 만든 실제 육체를 말한다. DNA를 제공한 지구인의 의식이 원격으로 조종하는데, 제이크는 아바타를 통해 판도라의 원시림에 들어가 네이티리를 만난다.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며 사랑을 이루는 제이크와 네이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진다. 특히 자신의 육체를 포기하고 아바타로 다시 살아가는 제이크의 선택이 사랑을 위한 결단으로 그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반면, 사랑의 메시지 안에 교묘히 새겨진 유전자 조작과 유물론적 사고, 범신론, 외계인 사상에 대해 말하는 이는 없다. 특히 새로운 종의 창조라는 쉽지 않은 문제를

짚어보자. 영화에 나오는 아바타는 인간도 나비족도 아니다.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를 조합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면, 그는 사람일까 침팬지일까? 그들은 사람과 결혼할까, 침팬지와 짝을 지을까? 그들끼리 따로 살아야 할까? 의문도 의문이지만, 새로운 종의 창조에는 보다 큰 문제가 있다. 바로 창조주를 향한 월권행위다. 종의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다. 사람은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임무를 받았을 뿐이다(창 1:28). 사람이 거룩하신 존재인 창조주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제다.

고 하용조 목사는 “창조와 진화 논쟁은 단순한 과학적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유무를 두고 대립하는 영적전쟁이다”라고 말했다. 창조와 진화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들, 진화론으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만화로 만나는 창조주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과학실험 큐티>는 현직 고등학교 과학교사이자 목사인 저자가 과학실험을 통해 우리 주위를 둘러싼 과학법칙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설파하는 책이다. 만화로 그려져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다.

진웅이(중1)와 동생 진아(초4), 과학교사이자 목사인 아빠와 엄마가 주인공이다. 생활 속 의문을 쉽고, 재미난 과학실험을 통해 풀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

나침반 실험을 통해 “행복하든 불행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는 나침반처럼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고 나침반처럼 제자리를 찾아 돌아와야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한다.

과학이야말로 아름답고 신나는 학문, 치유와 회복, 삶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착한 과학이 되기를 바란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People

만나고 싶습니다

“장로는퇴식은 있어도 인생의 은퇴는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정영열 장로(성동광진공동체)가 장로는퇴식에서 한 말이다. 그는 몸소 100세 시대를 사는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올해 71세 된 그가 4월 24일 선교사로 파송식을 하고, 26일 아프리카로 출국한다. 그에게 고령의 나이는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아직도 이팔청춘이다. 하나도 나이 들지 않았다. 최고령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되는 정영열 장로를 만났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71세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정영열 장로



정영열 장로가 지난 20일 파송 소감을 전했다.

“장로는퇴식은 있어도 인생의 은퇴는 없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로 결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아프리카에서 유치원 건립을 요청해 오자 자비량 선교사이자, 돕는 선교사로 자원했다. 그동안 정 장로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술하게 들었다. 과거에는 스리랑카로 선교를 나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해 못내 아쉬워하던 참이었다. 물론 고민도 있었지만 자원해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했다.

“그곳에 가보면 알겠죠. 저는 유치원 건축을 도우러 갑니다.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주민들과 선교단체가 소통하도록 돕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성경책 찢던 사람이 선교사가 되다

정영열 장로가 이토록 헌신하게 된 이유는 예수를 늦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유교집안에서 자랐다. 정 장로의 아버지는 유교,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다. 그의 성격은 보수적이고, 무뚝뚝했다. 집에서 아내만 교회를 다녔다. 한 집안에 유교, 불교, 기독교 신자가 함께 있을 수 없다며 아내가 교회를 갈 때마다 핍박했다. 봉천동에서 셋방살이를 하던 시절에 집에서 성경책이 보이면 찢거나 불태우곤 했다. 집에 심방오는 교회 사람들을 문전박대하기 일쑤였다. 오죽하면 교회 사람들이 그를 피해 다녔을까. 그의 아내 이숙자 권사는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다. 남편래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어느 날, 집에 주수일 장로(진새골 온누리교회)가 성경공부를 한다고 정 장로의 집을 찾

아왔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난생처음 아내를 따라 교회에 다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었다. 여러 교회를 찾아 다녔지만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술하게 고민한 끝에 1991년 온누리교회에 왔다.

“그 때만 해도 제가 온누리맨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된 것처럼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온누리교회에 온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 현금 보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좋았다. 둘째, 목사님이 가운을 입지 않고 말씀을 전해서 좋았다. 셋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올라갈 때 신발을 벗지 않아서 좋았다. 넷째, 여자보다 남자가 많아서 좋았다. 정 장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보수적인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온누리교회가 안성맞춤이었다. 1991년 12월 하용조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10년 동안 남편래 눈물 흘려가며 기도한 아내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정 장로도 “이 모든 것이 아내 덕분”이라고 했다. 그 말을 하는데 그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지금껏 기도해주고, 동역자가 되어 준 아내에게 가장 고맙고, 늘 미안하다고 했다.

“과거에 주(酒)선생을 따르던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主)님을 따르게 되었죠. 제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아내 덕분입니다.”

2008년 12월, 장로로 장립됐다.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스스로가 가장 놀랐다. 장로로 장립되면서 이렇게 마음먹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사역자다.”

정 장로는 그때 그 다짐대로 한 번 맡은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늘 순종했다. 주차봉사만 17년을 섬겼다. 장로중보기도모임에서 회계와 총무를 맡았고, 장로합창단도 참여했다.

2010년부터는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도왔다.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하용조 목사님 생전에 7년 되면 떠나라고 하셨는데 제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근무한 지 7년째입니다. 4월 26일 선교지로 파송되니까 하 목사님과의 약속을 지킨 거죠?”

그는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선교를 배웠고, 주차사역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를 하면서 섬김을 배웠다. 장로는퇴를 하면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다. 아내에게도 언젠가는 선교하러 가고 싶다고 말했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쓴 아내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고 했다. 그렇게 속 썩이던 남편이 아내 덕분에 선교사가 됐다.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 다 좋은데 반려자 이숙자 권사를 한국에 두고 가는 것은 안타깝고 아쉽다고 했다.

“다른 것은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데 몸이 약한 아내가 마음에 걸려요.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떠나기 전 은퇴한 장로들에게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백세인생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지요. 우리 모두 돕는 선교사로 더 열심히 씁시다.”

편지

홍범식 장로
(2000 선교본부)

지난여름, 장로님과 함께 아프리카 르완다에 방문했었지요. 장로님과 르완다 별판에 누워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 말 기억하세요?

“장로님, 70대를 의미 있고, 보람차게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이 앞서 그 길을 닦아서 가주시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쉽게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정 장로님은 누구보다 선교의 본이 되어주시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장로님은 누구를 다스리거나, 가르치지 않고, 본인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

사랑하는 정영열 장로님께

입니다. 오랜 시간 저와 호흡을 맞춰온 장로님을, 그것도 나이 71세에 시니어 선교사로 보내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선교현장에 가서 사역하는 것보다 후방에서 사역을 돕는 역할이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어렵고, 외로운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지난해 장로는퇴식에서 이런 말씀

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장로에게 은퇴식은 있어도 인생에 은퇴란 없습니다.”

오늘을 위해 그 말씀을 하신 거였군요. 이제 장로님은 선교지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겠지요. 나무 같은 사람,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고, 가진 것을 다 퍼주는 사람. 그런 분이 바로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을 위해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부천 드림플러스공동체가 뜨겁다!

금요일엔 기도회, 주일에는 일대일 제자양육!

불타는 금요일 밤을 기도열기로 채우는 청년들이 있다. 바로 부천 온누리교회 드림플러스공동체(대학청년부) 청년들이다. 드림플러스공동체는 매주 금요일 저녁 금요기도회 '성령플러스'를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일요일 저녁에는 성인공동체 일대일 양육자 104명과 청년 동반자 104명이 동시에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있다.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5일, 부천 금요기도회 '성령플러스'에서 드림플러스공동체 청년들을 만났다.

부천 온누리교회 사이닝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요기도회 '성령플러스'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손을 들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청년들이 가득이다. 금요기도회 '성령플러스'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집회다. 청년들이 금요기도회 성령플러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얻은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성령플러스는 그 자양분이 되는 집회다. 청년들이 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다양하다. 홀로 주님을 묵상하기도 하고 찬양을 드리기도 한다. 신앙 서적을 읽는 청년들도 있다.

금요기도회 성령플러스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약 다섯 시간 가량 진행된다. 집회장에서 만난 강은경 자매는 "평소에는 누군가 인도해줘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성령플러스 집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혼자서도 깊이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했다. 성령플러스에서 큰 은혜를 경험한 청년들이 한 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개인 기도를 하고 9시부터는 설교나 강의가 이어진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금요기도회 성령플러스는 매년 특별한 주제가 있다. 지난해에는 '사림의 기도'가 주제였다. 사림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기도를 배우는 장이었다. 사림의 기도를 배우고, 익히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 침묵기도, 금식기도, 묵상, 감사의 기도 등 기도 방법에 대한 다양한 강의와 설교가 이어졌다.

올해 주제는 '안식'이다. 이날은 키비(KIBI) 부대표 정호진 집사가 '사밧(안식일)'을 주제로 강의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이 무엇인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와 설교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대근 목사는 "청년들이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해 금요기도회의 주제를 안식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설교나 강의를 마친 뒤에도 끝이 아니다. 한 번 더 하나님과 교제한다. 공동체 자체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개인기도도 한다. 드림플러스공동체 청년들의 금요일 밤은 기도하느라 밤새는지도 모른다. 마침표가 없다.

성인 양육자와 청년 동반자

드림플러스공동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성인공동체와 협력사역을 하고 있다. 성인공동체 소속 양육자들이 청년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있는 것.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드림플러스공동체에도 일대일 양육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았다. 그런데 금요기도회 성령플러스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일대일 동반자반 신청도 함께 증가했다. 청년들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재미에 푹 빠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드림플러스공동체 소속 양육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그래서 생각해 낸 대안이 성인공동체와 협력하는 것이었다. 대학청년부 지대근 목사가 성인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성인공동체 소속 일대일 양육자 104명이 흔쾌히 수락했다. 청년들 일대일 양육자로 발 벗고 나서졌다. 그때부터 드림플러스공동체와 성인공동체가 함께하는 일대일 제자양육이 시작됐다. 청년 동반자 104명과 성인 양육자 104명이 동시에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는 진풍경이 그때부터 만들어졌다.

이 모습을 본 또 다른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다. "마치 온누리교회 초창기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청년과 성인이 함께하는 일대일 제자양육은 청년들의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성인공동체 소속 양육자들이 믿음의 선배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이다. 양육자들이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진로, 취업, 결혼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양육자인 동시에 멘토 역할까지 해준다.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3일에는 일대일 제자양육 감사축제 'M&M(Mentor&Mentee)'을 개최했다. 16주 동안 섬겨준 성인공동체 소속 양육자들을 위한 자리였다. 드림플러스공동체 청년들이 직접 기획했다. 간증과 토크쇼, 식탁 교제가 이어졌다. 5월이면 성인 양육자와 청년 동반자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이 90%이상 완료될 예정이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드림플러스공동체 청년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기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이경호 멘토
(사랑공동체)

2016년 봄에도 꽃이 피었다. 온 세상이 연두색 새싹을 움트우고, 형형색색 소담스러운 꽃 무우리를 쏟아내고 있다. 여기 꽃보다 아름다운 청년들이 있다. 그것도 100여 명씩이나. 지난해 12월, 부천 온누리교회에 신선한 사건이 벌어졌다. 성인공동체 소속 일대일 양육자가 드림플러스공동체 소속 청년 100여 명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기로 한 것. 가슴 뛰는 도전이었다.

이 시대 청년들은 인본주의와 유희문적 세계관과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을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숙제이다. 빛을 잃어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교회가 새로운 소망이요, 대안이 되어줘야 한다. 부천 온누리교회가 이를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이 발걸음은 우연이 아니다. 성인 양육자와 청년 동반자의 만남은 기도모임과 말씀 나눔에서 비롯됐다. 금요기도회 성령플러스와 토요예배에 참석한 청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말씀훈련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했다. 이 과정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신청한 청년 동반자가 100여 명을 넘었다. 그런데 드림플러스공동체 소속 몇몇 멘토들 외에는 일대일 제자양육자가 전무했다. 하나님께서는 성인공동체 양육자들이 청년들을 품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성인공동체 소속 일대일 양육자들이 청년들을 위해 헌신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정말 거룩한 섬김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게 2015년 12월 13일 청년 동반자와 성인 양육자 200여 명이 부천 온누리교회 본당에 모여 단제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했다. 다음 주면 일대일 동반자반 80% 정도가 과정을 수료한다. 과정을 마친 청년들을 일대일 양육자로 훈련시킬 계획이다. 그들이 양육자가 되어 또 다른 양육자를 만들어 낼 것이다. 영적 재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양육자로 훈련 받는 청년들 먼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 비유가 나온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여기서 등불이 무엇일까.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가리킨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 기름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성수만 지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지으셨다는 것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

"그들은 내 피붙이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사 43:7).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뒹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하셨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창조된 청년들은 인본주의와 유희문적 세계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입니다”

의료선교팀 CMN 드림팀 우승엽 팀장과 함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입니다.”
CMN 드림팀 우승엽 팀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이 한 저 말은 의료선교팀 CMN 소속 드림팀(이하 드림팀)의 존재이유이자 목표다.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다.
드림팀은 1999년 캄보디아 의료선교를 시작으로 발족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캄보디아 현지인들과 선교사들을 진료해 왔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와 고려인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역은 올해로 4년째 집중하고 있고, 매월 둘째 주일마다 안산 고려인교회를 섬기고 있다. CMN 드림팀 우승엽 팀장(분당A공동체)에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현지인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 인도네시아로 아웃리치를 떠난 우승엽 팀장(우).

드림팀 우승엽 팀장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 생활을 했다. 중학생 때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지만 막연했다. 그가 다시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것은 온누리교회를 다니면서부터다.

우 팀장은 2005년 CMN 드림팀 소속으로 해외 아웃리치를 갔다. 그때 경험이 의료선교에 완전히 빠져들게 만들었다. 우 팀장은 개인병원을 개원하고 첫 휴가로 가족과 함께 여름 아웃리치를 갔다. 그렇게 찾은 곳이 캄보디아인데 상황이 생각보다 열악했다. 드림팀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다. 일인당 생수 한 병씩만 할당될 정도였다. 그 물을 마실 수 없었다. 함께 간 자녀를 짊어졌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물을 주기 위해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의료선교를 하고 있는데 진료를 기다리시던 현지인 할머니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

“내가 마실 물이었다면 쉽게 줬을 텐데. 함께 간 자녀 생각에 선했지 못하겠더라구요.”

결국 우승엽 팀장은 그 할머니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자꾸 그 현지인 할머니가 마음에 걸렸다. 하나님께서 “물 한 모금도 나눠줄 수 없었니?”라고 묻는 것 같았다. 결국 우 팀장은 물 한 모금 나눠주기 위해 다시 캄보디아로 갔다. 지금은 캄보디아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의료선교를 하고 있다.

드림팀이 인도네시아 A마을을 섬기게 된 사연이 특별하다. 캄보디아 헤브론병원 사역이 안정되어갈 즈음 봉사자들이 많이 몰려왔다. 사역지를 옮겨야 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2년 가을 드림팀은 다음 사역지를 놓고 기도했다. 그런데 어느 곳도 연결되지 않았다. 막막함에 포기하려고 할 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9)”는 말씀이 떠올랐다.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네시아 선교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결이 됐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

늦게 준비했기 때문에 일정이 여의치 않았다. 드림팀이 가려던 곳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이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내선을 타고 더 들어가야 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수속절차를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 의료장비와 약품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 실랑이를 하다 예약한 국내선 비행기 시간을 놓치게 됐다. 어쩔 수 없이 짐은 두고 뚝만 가는 것으로 하고 부랴부랴 뛰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마지막 국내선 비행기가 한 시간이나 연착된 것 아닌가. 드림팀은 그 비행기를 타고 가려던 섬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

섬에 도착해서 차량으로 7시간을 이동한 끝에 마을에 도착했다. 새벽 6시였다. 현지 목사님이 드림팀을 보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도움의 손길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응답됐기 때문이다. 우 팀장은 그 때 일을 도저히 잊을 수 없다고 했다.

“현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드림팀은 그 때부터 지금까지 4년째 이 마을을 섬기고 있다. 미용팀, 어린이사역팀, 마사지팀, 중보기도팀, 사진팀도 함께 가서 섬기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물론 사역자들의 건강검진도 해주고 있다. 땀뻑한 일정을 마치면 녹초가 되지만 현지 주민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빼먹지 않는다.

“현지 주민들과 교제할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드림팀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현지 교인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다. 그 마을에 있던 교회도 성장했다.

안산 고려인교회와 CMN 드림팀

1999년 재외동포법이 제정되면서 해외에 살

고 있는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드림팀이 섬기고 있는 고려인들도 그 때 들어왔다. 우 팀장은 고려인들을 향한 마음도 애뜻하다. 그들과 함께하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려인들은 대부분 돈을 벌기위해 한국에 왔지만 그들의 삶이 녹록치 않았다. 한국말이 미숙해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들에게 교회가 유일한 위로가 됐다. 구 소련연방에 있을 때 한국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고려인들이 하나 둘 모여 교회를 세웠다. 그 교회가 바로 안산 안산고려인교회다. 드림팀은 원래 안산M센터와 김포M센터에서 외국인 이주민들을 섬겼는데 지난해부터 안산M센터 유세르게이 목사의 소개로 안산 고려인교회에서도 사역하게 됐다. 고려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발마사지팀도 동역하고 있다. 그들은 마사지를 하면서 성경말씀을 전한다. 비록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고려인들이 드림팀의 방문을 얼마나 반기는지 모른다.

드림팀은 어디서든지 찬양과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고 맺는다. 언제부터인가 드림팀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고려인들도 함께했다.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됐다. 우 팀장은 고려인들이 구 소련연방 선교사로 세워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전 세계를 누비며 희망을!

CMN(Christian Medical Network)은 전 세계를 누비며 의료선교로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세상에 평화를 심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열방을 섬기고 있다. 재난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하거나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직접 가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고 있다. 의료선교팀 CMN은 의료봉사로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의료팀 CMN의 전신은 온누리의료선교팀(OMT)과 의료선교위원회(OMMC)이다. 온누리의료선교팀은 1989년 양의, 한의, 치과, 약사, 간호사, 일반인들이 모여 섬기다 1992년 정식 선교회로 조직됐다. 당시 의료A, B, C, D, 라파, 안디옥, 양재팀에 이르기까지 총 7개 팀이 자발적으로 헌신했다. 의료선교위원회(OMMC)는 2000년 산하기관이었다.

2006년 7월 15일, 강원도 평창군 전역이 극심한 수해를 입었다. 사망자 9명, 실종자 2명, 재해를 입은 사람이 1,211명에 달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온누리교회는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 해 9월 긴급재난구호팀 ‘LAMP ONNURI(이하 램프온, LAMP ON)’를 발족했다. 램프온은 지구촌 어디든 긴급구호가 필요한 곳이면 신속하게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2007년 4월 10일 램프온 산하 의료기구로 기존 의료팀을 통합해 CMN으로 거듭났다.

CMN은 현장사역팀, 지원팀, 네트워크팀, 선교사 사이버병원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다. 현장사역팀은 국내외를 정기적으로 다니며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마하나임팀, BEE팀, 마노아팀, 드림팀, 라파팀, 토브팀, 샬롬팀이 있다. 주로 고려인, 농어촌교회,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등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지원팀은 현장사역팀과 동행해 이마용, 발마사지, 수기치료, 영정사진 찍기 봉사 등을 지원한다. 챔버, 예울림(국악과 한국무용팀)과도 동역하고 있다.

네트워크팀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다. 중보기도팀, 약무팀, 선교사케어팀, 의료데스크가 있다. 사이버병원 홈페이지(www.cmn21.org)를 통해 선교사들의 질병을 상담하고,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원 진료 받도록 돕고 있다.

문의: 02-3215-3786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CCM 자매듀오 김도연, 김도임 '주 앞에서' 앨범 발매

꽃보다 아름다운 자매가 있다. 주인공은 CCM 자매듀오 '여나목'이다. 여나목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라는 뜻으로 2010년 결성됐다. 언니 김도연은 지휘자, 동생 김도임은 서예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앨범 재킷의 글씨도 직접 디자인했다. 그녀들은 양재 온누리교회 새신자열린예배 찬양팀을 섬기고 있다. 다재다능한 자매듀오 찬양팀 여나목이 오는 25일 '주 앞에서'라는 디지털 싱글앨범을 발매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동생 김도임 자매는 털털하고, 언니 김도연 자매는 차분하고, 여성스럽다. 자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김도연, 김도임 자매는 5살 터울이다. 그녀들은 실력과 CCM가수로 잘 알려져 있다. 2010년 결성된 '여나목'은 'God Give Me A Song'과 'Only Jesus'라는 앨범을 냈다. 그리고 오는 25일 '주 앞에서'라는 디지털싱글앨범을 발매한다.

이번에 발표한 앨범 '주 앞에서'는 동생 김도임 자매가 호주여행을 하면서 만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과 삶을 나누던 중에 떠오른 영감을 곡으로 만들었다.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서 들을 수 있다.

언니 김도연 자매가 CCM가수가 되기까지

그녀들이 온누리교회에 오게 된 것은 순전히 찬양이 좋아서다. 언니 김도연 자매는 온누리교회 예배가 너무 좋았다. 동생 김도임 자매를 데리고 집 근처 수원 온누리교회에 등록했다. 자원해서 청년부 찬양팀을 섬길 정도로 찬양을 좋아하고, 사랑했다.

20년 넘게 성악을 전공한 김도연 자매에게 역설적으로 무대공포증이 있었다. 진로에 대한 고민과 무대 공포증으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미국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학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정경제에 어려움이 생겼다. 유학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고민하고 있던 중에 당시 수원 온누리교회 찬양팀을 섬기고 있던 문영재 목사를 만났다. 문 목사는 그녀의 사정을 듣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도연 자매, 유학보다 한국에서 재능을 마음껏 펼쳐 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침 동생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니 자매듀오로 CCM 앨범 내보는 것이 어때요?”

문 목사의 제안이 김도연 자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어릴 적부터 “찬양사역자가 되게 해 달라”는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란 그녀들은 문 목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문영재 목사와 함께 작업한 '주나목(주는 나의 목자)'에 이어 '여나목'이 탄생하게 됐다.

그녀들은 찬양사역자 외에 또 다른 직업을



CCM 자매듀오 '여나목'.

가지고 있다. 언니 김도연 자매는 '소누스 소년소녀합창단(Sonus Children's Choir)'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고, 동생 김도임 자매는 서예작가다.

동생 김도임 자매의 소망

김도임 자매는 25년 동안 서예를 배웠다. 어릴 적부터 서예학원만 가면 집에 오기 싫어할 정도로 글씨 쓰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주일에만 겨우 교회를 다니는 정도였다. 대학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다. 기독교학부에서 예배

를 배우고, 신실한 기독교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탈선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꿈은 서예작가의 길이었다.

“찬양과 서예는 분야가 다르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똑같아요.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서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시 23:1~2).

기고

〈다윗과 골리앗〉을 읽고



책 제목만 보면 신앙서적 같지만 일반 인문서적인 이 책을 집어 들게 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저자 말콤 글래드웰의 명성 때문이다. 그가 발표하는 책마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주장하는 바를 과학적 증거를 통해 흥미 있게 서술하는 뛰어난 작가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책의 부제 때문이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큰 제목 옆에

작은 글씨로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는 부제가 적혀있다. 다윗이라는 약자가 골리앗이라는 강자를 이길 수 있었던 과학적 증거가 무엇일까? 엄청난 흥미가 생겼다.

세상은 당연히 골리앗의 우세를 예상했지만, 실상 골리앗은 다윗과의 싸움 전부터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새로운 주장이다. 골리앗은 세계 최강의 싸움꾼으로 30kg이 넘는 갑옷에, 10kg이 넘는 방패와 창을 들고 있었다. 바로 이 갑옷, 창, 방패가 골리앗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무거운 무기를 들고 있으니 움직임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사무엘상 17:44에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내게로 오라”고 한 것이다. 자기가 움직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 보고 오라고 한 것이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거부하고, 평소 양을 치던 그 옷 그대로 입고 싸움에 나왔다. 그는 갑옷을 포기한 대신 기동성을 얻었다. 결국 다윗처럼 빠른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자랑했던 거대한 갑옷과 무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게다가 골리앗은 중보병이었다. 상대가 다가가 격투가 시작되면 골리앗은 세계 최강이다. 그러나 다윗은 투석병이다. 멀리서 돌이나 무기를 던져 싸움을 하는 다윗에게 골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

리앗의 융맹함과 싸움실력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다윗에게는 광야에서 단련한 기막힌 투석실력이 있었다.

축구를 좋아하는 나는 학창시절 축구해설가의 길을 가고자 진지하게 공부했던 적이 있다. 오랜 시간 축구를 봤지만 지금 영국의 축구리그(이하 EPL)에서 전개되고 있는 드라마 같은 상황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지금 '레스터시티'라는 하부리그를 전전했던 팀이 EPL 우승권에 근접해 있다. EPL 등 세계적 리그는 클럽의 수준이 안정화 되어 있기에 예상치 못한 팀이 우승하는 일이 드물다. 그들이 이토록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전선수들이 리그 중에 단 한 번도 부상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부상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부리그선수들은 부상을 당해 경기에 뛰지 못하면 주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부리그의 열악한 재정규모로 '뛰는 만큼 주겠다'는 불합리한 구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부리그 선수들은 그들도 모르게 부상당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어려운 여건이 선수들을 강하게 만든 것이다. 하부리그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선수는 엘리트코스만 밝은

선수에 비해 부상당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 부상당하지 않는 강함을 하부리그를 통과하면서 얻게 된 것이다. 레스터시티 선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리그를 평정할 만한 내구성을 갖게 된 것이다. 반대로 세계적 클럽들이 엄청난 돈을 주고 데려온 선수가 쉽게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이탈하거나 리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계속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력과 클럽 운영에 큰 타격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약함을 강함으로 승화시켜 승승장구하고 있는 레스터시티와 강해보임이 도리어 약함이 되어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빅클럽들을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한다. 나는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다고 한탄하는 소위 흠수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반드시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힘을 다해 현재를 살아갈 때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이길탁 목사
(여호수아공동체)



양재 중등부가 활동하고 있는 '7UP'에 다녀왔다.

청소년을 위한 큐티모임 '세븐업(7up)'

말씀 나누고, 청소년들의 고민거리 공유하고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중고등부)가 청소년들을 위한 등곳길 큐티모임 '7up(세븐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바쁘다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7up'에 참여하면서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스스로 큐티하고, 자발적으로 모이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다. 친구들에게 복

음도 전하고 있다.

7up은 오전 7시 학교 앞 카페에 모여 청소년 큐티책 '새나(Sena)'를 묵상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역자와 교사가 인도한다.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도 함께 나눈다. 교역자와 교사가 멘토가 되어 학교 생활 문제, 친구관계 등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현재 7up은 서빙고 중고등부 학생, 교사, 교역자 78명, 양재 중고등부 223명, 부천 중고등부 41명, 대전 중고등부 65명, 인천 중고등부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문의 : 02-3215-3523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대학부, 라비 재커라이어스 초청 세미나

5월 19일 오후 7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온누리교회 대학부가 라비 재커라이어스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응답한다 0519'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는 5월 19일 오후 7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막 오른다.

온누리교회 대학부와 G&M글로벌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적인 변증가 라비 재커라이어스가 '기독교가 당신

을 실망시켰습니까?'를 주제로 40분 동안 강의하고, 1시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방송인 정성희, 합창가수 마이크로프트, 샘옥&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려면 온오프라인으로 라비 재커라이어스에게 질문하고, 모바일 티켓을 수령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

(questions0519.org), 오프라인 신청은 질문을 적어 온누리교회 대학부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라비 재커라이어스는 세계적인 기독교계 석학이다. 40년 동안 기독교 철학, 세계 종교 등에 관한 주제로 세계 50여 개국에서 강연 활동을 해왔다.

/ 김미림 기자

4월 세례자

■서빙고

강경욱 791010
김나리 850330
김민아 871016
미승훈 850506
목유진 990520
태연선 710118
유아
권성진 150501
권혁룡 강선희
강우진 151008
강민석 권지은
고정원 140527
고현우 김동희
김미송 140605
김형노 송수민
김송윤 150418
김덕환 홍선자
김예찬 140820
김성민 김미경
김휘솔 141114

김성현 윤송희
박병준 140814
박해영 최주미
유민재 141014
유경우 신숙예
유아일 150519
유광평 김로사
이선민 151027
이승현 김수빈
전준한 150203
전용우 오정원
정준후 141024
정도식 장항희
최운유 141017
최혁중 김정아
열린새신자예배
김선화 820526
김현희 750120
박명근 560513
박신영 841120

전호준 850805
정재욱 740523
유아
안신우 150425
안홍진 명지윤
■양재
박지연 881209
신동일 630401
오명진 710519
이수정 680704
임동희 530506
조금욱 460226
입교
강효신 821024
유아
구은성 150211
구덕훈 김수영
김사랑 140430
김원철 장진명
김서하 140430

김동준 임동선
김수호 140409
김기백 김경희
김시안 150109
김호중 최윤경
김요한 150419
김희진 강효신
박 룬 140504
박준규 양지민
박재윤 150703
박태준 김수연
박하준 140811
박준홍 윤명량
오성준 150302
오영석 장효은
이루다 150411
이정근 문혜영
이 봄 150623
이정원 하운선
이민호 140829
이상윤 이선민

이하진 141013
이윤석 오경숙
임호균 140628
임제혁 김경은
정규현 140810
정원희 이혜인
정민준 150427
정한호 김보라
조이안 141127
조수현 박미현
조해나 150701
조태일 박자현
함일택터 150124
함리스완 오현정
황이림 140429
황병선 이신혜
■대학청년부
요셉
허영조 820204

하늘
강미송 971121
김건우 970306
장윤민 920107
허브
박진아 930731
안시연 980508
입교
김현민 950825
장수진 940817
SNS
김영하 861025
박유미 850814
장윤정 820514
W
남궁은경 881027
홍성욱 810426
유아
최원화 140814
최윤석 염남순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치카와 토시조 목사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실행위원장)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집회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응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러브소나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마모토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가슴 깊이 아파해 주시고, 중보기도해 주신다는 소식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들도 구호활동을 위해 구마모토 지역을 방문하거나 성금을 보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아픔에서 하루속히 일어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 오카야마는 구마모토에서 500km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지진의 영향이 없는 곳입니다. 원래부터 이곳은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적은 곳입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지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심하고 오카야마에 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준비단계에서 기도와 응원을 해 주신 것처럼,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집회 당일에도 직접 오셔서 응원에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재훈 목사님과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카야마 기 · 도 · 제 · 목

- 4월25일(월) 지진으로 재난 당한 일본 땅이 빠르게 복구되기를
- 4월26일(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행사가 잘 진행되기를
- 4월27일(수) 실행위원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 4월28일(목) 이재훈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 4월29일(금) 집회 당일 2천명의 참가자들이 천국잔치에 동참하기를
- 4월30일(토) 순서마다 기쁨 부으심과 출연진이 성령 충만하도록
- 5월1일(주일) 모든 스태프와 봉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참가자 교육

28일 양재 화평홀, 5월 12일 서빙고 두란노홀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참가자 교육이 4월 28일과 5월 12일 열린다. 28일은 양재 화평홀, 5월 12일은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오후 7시30분에 진행된다. 러브소나타 봉사자 교육에서는 오카야마 지역설명, 봉사 안내,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간단 일본어 회화와 일본어 노래를 가르쳐 준다. 러브소나타 오카야마에 참가하는 성도들은 꼭 참석해야 한다. 한편 이번 규슈지역 지진은 러브소나타 집회 개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 모집

5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111기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가 개강한다.

5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1~2주차는 오후 6시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 3주차는 크라운해태연수원에서 1박 2일, 4주차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아이스쿨, 홈페이지(www.onnurifamily.com)에

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당 20만원. 자녀를 동반할 경우 1인당 3만원 추가.

1993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되도록 돕고 있다. 부부 대화, 성, 치유, 하나님의 가정 원리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금세종 팀장

010-5235-2526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바로잡습니다

지난 주(1095호) 신문 2면 '가출 여성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 기사에 쓰인 성도의 이름이 최원준이 아닌 최준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제1096호 | 2016년 4월 24일(주일)

■ 부천 사랑부 부모 간증



/ 라희정 성도(부천 온누리교회 사랑부)

나는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다. 십일조도 빠짐없이 냈고, 교회도 거의 빠진 적이 없다. 나름 교회를 잘 다닌다고 생각했다. 잘난 것도 없지만 못난 것도 없이 살았다. 이만하면 괜찮은 교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내 삶이 평범하지 않게 됐다. 태어난 지 백일 된 우리 아이가 에드워드 증후군(18번 염색체 질환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의사는 이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서 죽을 수도 있고, 살아도 지적장애인이 된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아픔만 주신다”는 말로 위로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1년을 보냈다.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왜 죄인인지를 깨달았다. 내 안에 이기심과 교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래도 힘든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죽음까지 생각했다. 해답을 찾고 싶은 마음에 여러 번 하나님께 물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가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를 남편과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복직했다. 직장은 아이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유일한 도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피처였다. 그 곳에서도 나는 안식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3년이 조금 못되어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온누리교회를 알게 되었다.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예수제자학교(JDS)를 하면서 비로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때 만난 하나님은 내가 20년 동안 알던 하나님이 아니었다.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됐다. 나는 장애인 아이를 둔 엄마 2명과 함께 큐티모임을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삶에 감사하고 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이다.

“장애인 아이를 가졌지만 나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부천 온누리교회에도 사랑부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다. 2012년 12월 그 기도가 응답됐다. 너무 귀한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사랑부로 와주었다. 사랑부 친구들도 많이 모였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 대학청년부 프렐(거지전도여행) 간증



/ 김완수 형제(길공동체)

나는 부순장이다. 그런데 부순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다. 부순장으로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런 나에게 프렐(거지전도여행)에 참여할 기회가 찾아왔다. 프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중한 사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프렐에 참여하는 마음이 참 가벼웠다.

“프렐은 처음이니까 꼭 가봐야지.”

프렐을 기도로 준비하기는커녕 마음이집조차 온전하지 못했다. 나의 상태와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다. 1박2일 동안 부족한 나의 모습을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경기도 화성에서 프렐을 했다. 화성 시청 인근에서 전도를 했는데 개발이 한창인 지역이라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다. 갑자기 비가 참 많이 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를 피할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셨다. 프렐은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돌보아 주신다는

순종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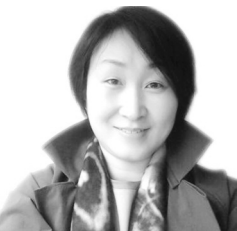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루를 묵었던 화성제일교회 우남호 목사님 가족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우 목사님 가정은 어려운 개척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교회 근처에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남아 있는 성도들도 몇 없었다. 교회학교에 나오는 차세대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도 우 목사님은 성경학교를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성경학교를 지키고 있는 우 목사님과 그 가족들의 믿음을 본받고 싶었다.

우 목사님에게는 세 명의 딸이 있다. 딸들은 또래와의 나눔을 매우 갈급해 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성제일교회로 보내신 이유도 우 목사님의 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한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간증을 나누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나의 간증을 나눈다는 것이 영광스럽기도, 부담스럽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이번 간증을 쓰는 기회를 통해서 순종이라는 말씀을 보여주셨다. 프렐을 통해 주신 은혜도 순종이었다. 이제 책임감 없는 부순장이 아니라 순종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 1다락방 1사역 간증



/ 손정연 성도(일산공동체)

그 아이들의 미래가 찬란했으면

고양열린청소년쉼터는 일산공동체가 오래전부터 섬기고 있는 사역지다. 나는 지난해부터 그곳에 관심을 갖고 사역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고 있다.

내가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 새로 온 아이들이 있었다.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또래 청소년에게는 볼 수 없었던 슬픔이 느껴졌다. 안타까웠다. 그 아이들이 쉼터에서 지내면서 표정이 달라졌다. 부드러워지고, 생기가 가득해졌다. 고양열린청소년쉼터는 단순히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윤기선 목사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언니들은 동생들을 챙기고, 동생들은 언니들을 잘 따른다. 서로 돕고 있는 고양열린청소년쉼터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고양열린청소년쉼터는 아이들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미술수업, 공예수업, 전시준비를 하면서 미술대학 진학준비를 하는 아이들도 있다. 다시 꿈을 찾은 아이들이 참 예쁘고

기특하다. 윤 목사님께서 내가 미술을 전공했다는 말을 듣고 미술수업을 부탁했다.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용기를 내서 수업을 시작했다. 물감과 연필을 거칠게 쓰는 아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한 줄 그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아이, 섬세하고 선이 예쁜 아이 등 아이들마다 개성이 었보였다. 밝은 얼굴 뒤에 있는 슬픔도 보였다. 그 아이들의 안타까운 현실도 알게 되었다. 항상 웃는 수애(가명)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기뻐지면 좋겠어요. 집사님”

그 말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수애의 슬픔이 느껴졌다. 내가 이곳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왔다는 것을 재확인 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사랑을 당연히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오해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세상이 받아야 한다. 나는 고양열린청소년쉼터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아이들의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 찬란했으면 좋겠다.

■ 4월 세례 간증



/ 태연신 성도(OCC공동체)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조상을 잘 모셔야 너희들이 잘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집안이었다. 다른 요리는 못 해도 제사음식은 잘 할 정도였다. 그렇게 20년을 살았다. 대학입시에 실패하고 재수학원을 다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미국 생활이 너무 좋았다. 공부는 안중에도 없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다. 3개월쯤 지났을까.

주일마다 친구들이 교회를 가니까 나는 늘 외톨이였다. 한 날은 너무 심심해서 교회를 따라갔다. 처음 가 본 교회는 충격적이었다. 드림을 비롯한 각종 악기에, 무대에서 춤을 추고,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했다. 나는 “교회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친구가 전도사님 부부를 소개시켜 줬는데 무례한 질문을 마구 퍼부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전도사님의 아내의 활체어를 타고 계셨는데 처음 만난 나에게 사고당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해주셨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럴까?”

너무 궁금했다. 매주 교회에 나와 전도사님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다. 나도 모르게 변하고 있었다. 새벽기도회에도 나가고, 전도집회를 찾아다녔다. 한국에 들어올 때 부모님을 꼭 전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넌 천국가라, 나는 극락간다.”

엄마는 나의 끈질긴 전도에도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엄마와 함께 홍콩에서 사업을 하시는 아빠를 만나러 갔다. 홍콩에서의 주일날 아빠가 옷을 얹전히 차려입고 나오라고 하셨다. 아빠가 나와 엄마를 데리고 간 곳은 교회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빠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2007년 돌아가셨다. 회사 대표님께서 일대일 제자 양육을 권하셨다.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 동창 모임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연신이 예수 믿더니 예수쟁이 다됐네.”

예수쟁이가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인지 처음 알았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양을 잘 키우기를 소망하며



전구영 장로
(일대일위원회)

일대일 제자 양육과 큐티는 온누리교회의 대표적인 양육 프로그램이다. 나는 교회적으로나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대일 제자양육과 큐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가 지극히 기초라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 온 한 사 람의 양육자로서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 다. 나는 이 글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 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일대일 제자양육 을 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교회적 으로는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해 건강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개인적으 로는 신앙이 체계화되어 건강한 신앙생활 을 할 수 있게 된다.

한 번은 선교에 비전을 품고 있던 동반자 를 양육한 적이 있었다. 그 동반자는 내게 선교사가 되고 싶다며 신학공부를 해야겠 다고 말했다. 신학대학원 필기시험에는 합 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져 재시험을 준비 하고 있었다. 그와 내가 사역에 대해 나누 던 날이었다. 나는 그 동반자에게 사역은 어디를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말했다. 이 말에 그 동반자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직장을 사역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날 이후 그 동반자 는 신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직장에서 열 심히 일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또 다른 동반자와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 를 나누던 날이었다. 그 동반자는 자신은 헌금이나 십일조 못한다고, 그 돈이 아깝 다고 말했다. 나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더니, 그래도 헌금을 못 한다 고 말했다. 당시에는 강요하지 않았다. 일 대일 제자양육을 잘 마치고 3년이 지났을 때 그 동반자가 멀리서 나를 보고 막 뛰어 왔다. 그러면서 자신이 십일조를 시작했다 고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일대일 제자양육 을 받으면서 십일조를 거부했던 것이 큰 부담으로 남았었다고 했다. 지금은 십일조 도 흔쾌히 낼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신앙 생활도 잘 하고 있다고 했다. 그 동반자를 볼 때마다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허탈한 적도 있었다. 동반자를 심혈을 기울여 양육했다 고 생각했는데, 일대일 제자양육이 끝나고 난 뒤 내 욕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나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할 때는 별 말이 없었는데 나와 맞지 않았나보다. 일 대일 제자양육을 받고 난 이후에 양육자가 별로였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화가 나기도, 허탈하기도, 씁쓸하기도 했다. 반 성도 했다.

그래도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 보람이 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보이고, 개인 의 신앙도 성장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대일 양육 자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 다. 일대일 양육자들이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걱정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그들 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서로의 신앙생활을 나누는 것이지 신학이 아니다.”

성경통독을 하라는 권면도 하고 싶다. 성 경통독을 하면 일대일 제자양육과 큐티가 깊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나눔이 절도 있 고, 더 풍성해진다. 건강한 양육자가 되어 주님이 자신에게 맡긴 양을 잘 키우기를 소망한다.



한현숙 권사
(이촌공동체)

1985년 11월 18일 둘째 완이 가 태어났다. 어 느 날 TV육아 프로그램에서 “말이 늦으면 장애 가능성이 있다. 아이가 몇 개월에 엄마라 고 했는가?”라는 내용을 들었다. 완이가 엄마 라고 의미 있게 부르지 않았던 것이 머리를 스 쳤다. 완이는 외모도 예쁘고, 건강하고, 명랑해 서 미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문 제가 있는지를 확인해보려고 완이에게 말을 걸었는데 자신의 일에만 열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정확한 검사를 하게 됐다. 검사결과, 자폐 성향의 발달장애 3급 진단을 받았다.

나는 그날 이후 장애인 아동을 키운 부모들 의 이야기를 듣고, 교육에 전념하게 됐다. 부모 교육을 위한 강의에서 “미국의 장애인 권리는 부모님들이 만들었으니 여러분도 자녀의 인 권을 지키십시오. 미국의 장애인법에서는 세 금을 내는 국민이 되어 살게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완이의 홀로서기 교육과 치료를 시작하려면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다. 그렇게 완이는 8살부터 피아노를 배웠다. 오 랜 시간이 걸려도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나는 청소라도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 는 것이 목표였다.

우리 가족은 1999년 3월 온누리교회 사랑부 에 오게 됐다. 당시 주일예배에서 하용조 목사 님이 사랑채버 모집 광고를 하셨다. 들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라고 생각하고 바로 등록했다.

나는 완이가 휴대하기 편한 악기로 어디서 든지 소리를 내는 연주자가 되기를 바랐다. 완 이는 처음에는 아코디언을 연주하다가 클라

리넷을 연주를 하게 됐다. 나사렛 대학교에 입 학해서 관악기를 전공했다. 2010년에는 사랑 채버를 졸업하고 지금은 교사로 활동하고 있 다.

완이는 그동안 고용노동부 훈련센터에서 6 개월 직업교육을 받고 ‘베어베터’에 취업을 했었다. 베어베터에서 커피 로스팅부터 다양 한 영역의 기술을 배웠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NHN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로 이직을 했 다. 장애인 청년 10명이 이곳에 속해 있다. 완 이가 드디어 홀로서기를 한 것이다. 그동안 완 이를 위해 그토록 열심히 기도한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나는 사랑부 교사로 섬기고 있다. 지난 시간 을 돌아보면서 온누리교회 사랑부에서 받은 은혜가 정말 컸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교 사로 지원했다. 그렇게 시작한 사랑부 교사생 활이 벌써 7년째다. 나는 이곳에서 부모와 교 사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통로가 되어주고 있다. 장애인을 둔 부모는 어느 정도 상처가 있다. 사회적으로 적대감을 받은 적도, 굶지 않 은 시선을 받은 적도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 들의 마음을 잘 전달해주는 것이 내 역할이다.

사랑부를 섬기면서 교사의 헌신과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 완이도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랑 부 교사들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돌려 주는 귀한 사람들이다. 이 자리를 빌려 사랑부 교사들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 교사의 부르심으로 귀하게 사역하는 모습만 으로도 감동이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온누리교회에 빛진 자 였다. 이제는 내 아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를 연결해주는 통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기도를 응답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 들을 품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다.

사랑부 문의: 010-2890-1707

신앙에세이



한화수 목사
(요셉공동체)

구원 받은 이후 삶에는 여러 일 들이 일어난다.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다. 늘 좋은 일 만 있는 것도, 좋 지 않은 일만 있 는 것도 아니다.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공존한다. 구원 받은 이후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어째서 좋지 않은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일 까?”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 일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백성들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다. 큰 충격이 큰 질문을 낳은 것이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큰 충격을 받을 때 큰 질문이 생긴다. 그레 서 의미를 찾게 된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더 나은 이 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기 면 “그 실패가, 그 아픔이, 그 절망이, 그 어둠이 나의 것이 되지 않았다면” 이라고 질문할 것이 다. 물론 이해하기 위해 실패를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것이다. 실패가 내게 찾아온 것이고, 아픔이 나에게 찾아온 것 이고, 어둠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렇기에 해석해야 한다. 일어난 현실과 사건에 대해 어 떠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그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어 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해다. 실패 를 통해 실패를 알게 된다. 나의 현실이 되기 전에 모르던 것이 나의 현실이 되면 비로소 알 게 된다. 이것이 좋지 않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 는 이유다. 하나님은 더 나은 이해로 나아가게 하려고 그것을 허락하신다.

더 나은 이해

그렇다면 누구에 대한 더 나은 이해인가. 첫 째, 하나님에 대한 더 나은 이해다. 존 칼빈은 <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을 의미 한다”고 말 했다. 따라서 신앙의 전진은 남은 삶과 시간을 통해 요청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생각의 오류다. 하 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되 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릇된 오해는 신앙의 변질을 낳는다. 신앙은 이해를 통해 서고, 오해를 통해 넘어진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했을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 마틴 루터 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라(Let God be God)”고 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를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실패하 곤 한다.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 한다.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될 때 오해가 사라진

다. 절망이 나의 절망이 되고, 어둠이 나의 어 둠이 될 때 조금씩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 그 래서 어둠 속을 걸음으로써 밝은 이해로 나아 가는 역설이 존재한다.

둘째, 자신에 대한 더 나은 이해다. 신앙생활 을 하다보면 가상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스캇 팩은 이렇게 기록했다.

“실체는 공동체가 아닌데, 공동체의 외양만 가진 공동체가 있다. 이러한 공동체는 가상 공 동체일 뿐이다.”

신앙생활도 이러한 가상의 측면이 있다. 믿 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혀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말뿐인 가상의 존재가 된 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자신이 믿는다고 이해 하며 살아간다. 안 좋은 일들은 이러한 허상을 드러낸다. 남 이야기 같던 것들이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부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안 좋은 일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나에 대해 더 나은 이해로 나아가게 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엡 1:13~14).

이 구절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임했던 성령세례 사건을 교리적으로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성령세례 사건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 성령의 인지심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의미합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일 때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문서가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때도 도장을 찍습니다. 봉투에 인이 찍혀 있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소유, 안전, 진실, 진정성이 도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준 사건이 성령의 인지심입니다.

둘째, 우리의 유업의 보증입니다. 보증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계약금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증금이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거래하거나 집을 사고 팔 때 계약금을 줍니다. 계약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계약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의 온전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세례를 받은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금을 주신 것입니다. 아직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과 기쁨과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세례를 사모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세례를 체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세례를 경험했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세례는 은사와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성령세례가 은사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화는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송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도 기도하고,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힘 있게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세례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을 율법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행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세례는 세상의 계급장 받듯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세례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보장된 약속이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마땅히 체험해야 할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성령세례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부족해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세례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장할 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

성령세례가 임한 후에 바울이 행한 것을 보십시오. 그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여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8~10절).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따로 불러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에 두란노서원이라는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두란노서원은 두란노라는 사람 소유의 건물이거나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운영하던 철학서원입니다.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곳을 빌려서 사용했는데 다른 역사자료에 의하면 바울과 제자들이 두란노서원에 모인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서너 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너무 더워서 그 시간에 낮잠을 잤다고 합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는 항상 수레바퀴처럼 함께 굴러갑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성령세례가 임한 배경에는 18장 5절에 아볼로를 통한 말씀사역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의 수레를 타고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후 사도 바울은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도 일주일씩 모여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세례가 내 안에 임한 증거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오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사역은 수레바퀴처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적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현재의 영적생활 수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늘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기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로 나아가십시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날마다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받았습니까?”라고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날마다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고 대답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스마트 M 스쿨에 초대합니다”

IT분야의 혁명적인 발달로 우리는 참 편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지구 반대편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다. 이제는 IT기구나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2007년 1월 아이폰이 출시되면서부터 시작된 스마트 열풍은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가전으로 이어졌다. 제품과 서비스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기기를 통한 수업도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데에는 공간, 시간, 언어, 문화 영역에서 많은 장벽이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주셨다. 바로 스마트 정보기술이다. 스마트 정보기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도구(전화, 인터넷, SNS 등)를 사용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요롭고, 편리한 IT기술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 IT기술을 이용해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뉴스에는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퇴폐적인 것들이 가득하다. 성숙한 어른을 뜻하는 성인이라는 말이 음란하고, 퇴폐적인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이단세력들은 IT기술을 옳지 않은 교리를 퍼뜨리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유튜브(Youtube)에 폭탄제조법을 올리거나 SNS를 이용해 테러리스트를 모집하는 등 IT기술을 극단적인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변질된 복음과 극단적 이슬람주의는 세계선교에 위협한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다.

IT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IT를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삶과 선교에 적용하고, 대처할지를 배워야 한다.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전했고, IT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교역사를 이뤄가실까.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온 세상이 하나로 묶여 있는 지금 각자의 손과 자리마다 있는 스마트기기는 매우 중요한 도구다. IT영역을 사탄의 세력에 내어 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 안산 M센터에서는 IT시대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제1회 스마트 M 스쿨’을 개강하려고 한다. 해외 및 국내, 이주민 선교에

초점을 맞춘 과정이다. 효과적이고, 역동적인 스마트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다양한 스마트 정보자원을 자투리 시간에 사용하거나, 비전트립을 가거나,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선교할 수 있다. 선교사를 지원하는 선교, 장단기 선교를 가는 다양한 방법과 모델에 대해서도 나누려고 한다. 스마트 M 스쿨에 초대한다.

/ 방생물 선교사(FMnC, 온누리교회 파송)

제1회 스마트 M 스쿨 개강

기간: 5월 25일~6월 29일(총 6주)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7:00~9:30

장소: 온누리M센터(안산역 도보 10분)

주최: 온누리M센터 & FMnC

회비: 5만원

문의: 조성환 전도사(010-7622-7247)

14 온누리신문

Acts 29 게시판

2016년 4월 24일(주일) | 제1096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분당

월요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010-3301-289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9:0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 안산M센터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 4층
다문화꿈땅예배 11:00 안산M센터I, 3층
다문화과워워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3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예배 14:2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30~3: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10:30~12:30
-셔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에zell선교회 간사 모임

모집: 편집 디자이너
프로그래: 포토샵, 인디자인, MS office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간증문, 담당 목사 추천서
제출: exer1985@daumnet
문의: 792-1628, 010-2713-3949
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유아3부 건반 봉사자 모집
섭김시간: 주일 오후 1시~4시
문의: 김유기 코치(010-3222-7187)

일대일과목별특강

일시: 매주일 오전 8:10~10:0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일정: 4/24 예수그리스도2 이만목 목사
5/1 휴강
5/8 예수그리스도3 강일영 목사
자격: 모든 양육자(오픈강의)
문의: 오성탁 집사(010-3004-3311)

OEM한국어교실 교사(봉사자) 모집

요일: 매주 토요일(계절방학있음)
시간: 오전9시~오후2시
지원자격: 등록교인, 일대일수료자
제출서류: 신앙간증문, 자기소개서
문의: korean@onnurienglish.org

미얀마 단기 의료선교 팀원 모집

일시: 7월 9일~7월 14일
장소: 미얀마 양곤
모집대상: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봉사자
문의: 김조경(010-4369-1211)

인도네시아 람퐁 아웃리치 팀원 모집

일시: 6월 4일~6월10일(6와 7일)
장소: 인도네시아 람퐁(수마트라섬)
내용: 의료사역, 청소커사역, 음식문화사역
비용: 1인 106만원(항공료 포함)
비고: 가족(초등이상 청소년) 동반 가능
문의: 010-9443-9032 (람기모 총무)

두란노문고 직원 및 아르바이트 구인

모집분야: 서점
지원요건: 20세 이상 30세 이하 형제 0명
근무시간: 오전 10시~오후 7시(화~금)
문의: 02-2078-5753, 02-796-2310

창조과학스쿨

대상: 교회 성도 및 공동체
일시: 5월 22일~6월 12일 주일 오후2~4시
장소: 홍보관
문의: 010-3869-7785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총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총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은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은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사랑부 교사 모집
문의: 조현배 총무(010-3342-9459)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셔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2000선교 프랑스어예배 선교세미나
일시: 5월 9일~30일(매주 월) 오후 7:30
장소: 양재 비전홀A(지하 2층)
담당: 제라르 티네베 목사(통역 있음)
문의: 김기정 총무(010-3912-9393)

건강한 몸 거룩한 성전(건전동우회) 회원 모집
시간: 월~금 7:20~7:50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비전홀B
내용: 스트레칭 및 전신운동과 복부 하체운동
강사: 정주호의 스타트레이너에서 파견
문의: 정명옥(010-9950-8160)
최순영(010-2745-2302)

‘온누리 의사의 밤’ 안내
일시: 5월 7일 토요일 오후5시
장소: 양재 화평홀
대상: 온누리교회 의사
신청: 02-3215-3786

*게시판광고파람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7:00/2부 오전9:00/3부 오전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4:00(대청예배)/6부 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30 3층 꿈아이를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를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5부 오후 4: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19:40 분당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시 분당 / 4부 오후 4시 분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네팔) 매주 주일 오후 7:3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소년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주중예배
수요여성예배 수 오전 10:30 분당
수요온누리워십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지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인천

032.437.9686

주일성인예배
1부 오전 9시 컨벤시아 1층 113-115호
2부 오전 11시 컨벤시아 1층 113-115호
3부 오후 1시 컨벤시아 1층 113-115호
Web대학청년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6층

차세대예배
-컨벤시아(오전11시)
영아부 102호 / 유치부 110호
유년부 107호 / 초등부 104호
-프리스페이스 6층

중등부 오전 11시 / 고등부 오전 9시

사랑부예배(장애우) 오전 11시 컨벤시아 1층 104호

주일국제예배
해운대/크리스티아영어예배 오후 1시 컨벤시아 1층 108호

몽골어예배 오전 11시 스마트밸리

수요오전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프리스페이스 6층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저녁 7:40 프리스페이스 6층

강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지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지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11:00 / 3층 주선애홀 (영성중계)
예수님의 꿈아이(유아,유치)/ 11:00/지하1층
무어홀
꿈이지라는 땅(유년) / 11:0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지라는 땅(초등) / 11:00 / 지하1층 길보른홀
파워웨이브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수요선교예배 / 19:20 / 1층 시안홀

예수님을 바르게 보여주는

온누리 NGO

더 멋진 세상

후원약정

2016. 4. 24 주일

